

#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광주 동구 유치를”

### 동구·(사)광주연구소, 내일 오후 동구청서 토론회 개최 이민원 교수 등 주제발표...장애 요인 극복 대책 '관심'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의 '광주 동구'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광주 동구 건립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관 기관은 (사)광주연구소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규원 한겨레 21 기자와 이민원 광주연구소 이사장이 각각 '국립미술관의 지방 분산 필요성과 국내의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관의 필요성과 광주 동구 유치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김 기자는 국립박물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과 달리 국립미술관은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지방 분관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이 이사장은 광주관 부지로 앞서 거론됐던 옛 신양파크 호텔 외에도 조선대학교, 광주 서석·중앙초등학교, 아시아문화전당 활용 방안과 접근성 개선

전략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이사장은 광주관 설제로 인한 경제·문화적 파급 효과와 장애 요인 극복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관심이 모인다.

발표 이후에는 ▲김성배 광주시청 문화체육실장 ▲장훈 동구청 문화관광과장 ▲이승권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교수 ▲황재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좌장은 정성배 광주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동구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종합, 정리해 광주시에 우선 전

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신설은 광주·전남지역 미술계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광주시 역시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조사 용역비를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 왔으나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실제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다.

인재영기자



산불 초동 진압훈련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13일 오전 광주 북구청 산림팀 산불진화대원들이 관내 운영동 한 야산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 진압대응을 위해 등짐펌프 등 장비를 이용해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7:06 해질 17:27  
🌙 달돋이 16:08 달짐 04:51

인천	12/17	서울	11/18	대전	9/18	전주	10/19	광주	10/20	대구	8/19	부산	13/21
춘천	8/16	강릉	10/19	제주	16/23	여수	13/19	광주	10/20	목포	12/20	여수	13/19
나주	9/20	완도	12/21	구례	7/20	강진	10/21	해남	10/21	장성	8/20	보성	8/19
영광	9/20	진도	12/20	흑산도	11/20	고흥	10/20	영광	9/20	진도	12/20	흑산도	11/20
고흥	10/20	고흥	10/20	고흥	10/20	고흥	10/20	고흥	10/20	고흥	10/20	고흥	10/20

● 생활정보지수  
 🍗 **너들이 40** (우산 챙기세요)  
 🧥 **빨래 40** (실내건조 좋아요)  
 🚗 **세차 20** (세차는 다음으로)  
 🏃 **운동 50** (실내운동 즐겨요)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부 먼바다(북)	1.0-2.0	1.0-2.0
남부 먼바다(남)	1.0-2.0	1.0-2.0
남해 앞바다	0.5-1.0	0.5-1.0
서부 먼바다(동)	1.0-2.0	1.0-2.0
서부 먼바다(서)	1.0-2.0	0.5-1.5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0:09	05:42
	12:46	18:12
여수	07:39	01:15
	19:53	13:39
녹동	08:20	02:15
	20:30	14:48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1월 15일(금)	☁ (13/21)	☁ (12/20)	☁ (12/20)	☁ (11/19)	☁ (18/22)
16일(토)	☁ (14/22)	☁ (13/20)	☁ (13/21)	☁ (13/20)	☁ (19/23)
17일(일)	☁ (13/16)	☁ (11/13)	☁ (14/18)	☁ (13/16)	☁ (17/18)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 ‘전남 함께한걸음센터’ 개소...마약 치료 지원

### 순천 양천회관에서...주간재활센터 내년 본격 운영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강화와 건강 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남 함께한 걸음센터(마약중독재활센터)'가 13일 순천시 양천동 양천회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의 '함께한걸음센

터'는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이 아닌, 중독자가 직장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주간재활센터(오전 9시-오후 6시)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센터에선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가 지역사회 내 마약류 중독자를 발굴해 심리상담, 집단 프로

그램 등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개별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 채용 및 누리집 개설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 뒤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전남도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최근 2년간 도민과 청소년 대상으로 2만여명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마약 피해가 의심되면 검사를 통해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25년부터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필로폰, 대마, 모르핀,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6종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와 익명검사 도입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교육청 '챗GPT 활용 '홍보봇' 이용하세요'

전남도교육청은 13일 "교직원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한 '전남교육 홍보봇'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 홍보봇'은 전남교육청의 보도자료 문체와 형식을 학습한 맞춤형 AI 챗봇으로, 교직원 누구나 간편하게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자는 챗GPT 누리집(chat.openai.com)에 회원가입 후, GPT 탐색 창에서 '전남교육 홍보봇'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으며, 전남도교육청 누리집 '홍보마당' 탭을 통해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

하다. 행사계획서, 팸플릿 등 정보가 담긴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줘"와 같은 명령어를 넣으면 보도자료 초안이 자동 생성된다. /김다이지

## 진도서 '국내 미기록 독버섯' 3종 발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3일 진도에서 미기록 독버섯 3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내 도서 지역의 생물다양성, 활용 가능성과 함께 독버섯이 중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올해부터 독버섯 다양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 독버섯 연구는 주로 내륙 지역에 집중돼 도서 생태계의 독버섯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원관 연구진은 완도와 진도 등 도서 지역에 서식하는 독버섯 자원의 생태와 분포를 조사한 결과 완도와 진도에서

총 3종의 독버섯 자생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국내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독버섯 3종(Agaricus melanopus, Agaricus sinoplacomyces, Gyroporus paramjitii)을 진도에서 새롭게 발견했다.

확보된 독버섯 배양체는 섬생물소재은행(BOBIC)에 기탁돼 앞으로 생물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종원 자원관 미생물연구부장은 "도서 지역의 다양한 독버섯 자원과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구를 계속해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문의 : 062)650-2099